

한국인의 지역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¹⁾

이종한 · 김혜숙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만족감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국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을 하였다. 읍/면지역에서 자기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동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웃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주지에 더 살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택의 편리성, 교통 등 지역의 편의성과 환경공해 등이었다. 지역공동체 의식과 지역만족도는 주민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동, 읍, 면 또는 이 보다 약간 더 좁은 지역으로 한정지었다.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는 현재 사는 곳이 고향이었고, 타향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면 공간적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이웃사람들이다. 우리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 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즈음의 이웃은 옛날 시골의 마을에서 함께 살던 이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우리집의 벽이 바로 옆집의 벽이고, 우리집의 방바

닥이 아랫집의 천정이 되는 도시의 아파트 생활은 공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는 훨씬 소원해졌다. 더우기 통신과 교통 수단의 발달에 의해 우리의 생활공간은 과거에 비하여 급속도로 확장되어, 조그마한 마을이라는 이웃에서 상부상조하던 공동생활과는 매우 다른 광역시나 도와 같은 상당히 넓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삶에 있어서 행복감 또는 만족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지만 경제의 발전이나 물질의 풍요로 이

1) 본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 "삶의 질: 공동생활"의 일부로서 첫번째 저자가 담당하였던 "지역공동생활" 부분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삶의 질: 공동생활" 연구과제는 전체적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첫번째 해의 연구결과이다.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은 경제, 인구, 환경, 안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의 안정성이 필요 요건이 된다(홍숙기, 1994).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인간관계 중에서 우리가 사는 거주지역의 환경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되는 거주지역의 요소들에 대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생활 · 지역공동체의 개념

지역공동생활은 지역공동체(또는 지역사회)라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생활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공동체에 대한 범위가 먼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분류기준이나 연구자의 견해,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서 그 분류되는 유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상복(1980), Gusfield(1975) 그리고 McMillan과 Chavis(1986) 등이 주장한 개념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공동체 형성의 근거로 한 이웃, 아파트 단지, 동네, 읍, 면, 도시와 같은 거주지역과 이웃들과의 모임, 향우회 등 지역단체의 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리적 공동체(지역사회)를 지역공동체로 정의하였다

가장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는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사는 ‘가까운 이웃’이고 지역공동체의 규모는 공간적 거리가 점차 멀어지면서 점차 확대되어 ‘동네’가 되고, 나아가서 ‘동’/‘읍’/‘면’, 더 나아가서 ‘시’/‘도’ 단위의 상당히 넓은 지역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구역의 위계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최근에 들어 과학문명의 발달은 정보와 통신 그리고 교통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와 과거의 공간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 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전국을 거의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가고 있어 전통적으로 가까운 지리

적 공간을 지역공동체의 기준으로 생각하던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역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국가단위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지역공동체의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거리가 좁혀져 “작은 지구”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살아가는 지구공동체 즉, 인류공동체로까지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 그리고 이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좁고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인 이웃, 동네, 행정구역상의 동, 읍, 면,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와 이러한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의식

공동체의 역사, 유형, 그리고 기능 등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지역사회개발, 심리학 등 여러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전통적인 공동체가 취약해지거나 해체되고 인간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19세기 유럽의 사회철학자들은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동체의 원형을 가족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Tönnies(1887/1989)가 제안한 이익사회(Gesellschaft)와 공동사회(Gemeinschaft)의 개념은 공동체의 기본적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동사회는 감정, 습관, 전통 등의 복합적 속성을 내포하는 자연적인 의지가 지배하는 사회인 반면에 이익사회는 의지 또는 이해(利害)로부터 생겨나는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비인격성, 계약주의로 특징 지워 지는 합리적 의지에 의하여 형성된 조건화된 사회이다. Kitto(1951)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공동체의식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시민들

의 성실한 헌신을 모토로 삼았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시민정신이 공동체의식의 뿌리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지배계층이었던 양반사회의 모임이었던 “죽계”와 “향안” 그리고 피지배계층이었던 서민들의 모임인 “촌계”와 “두레”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대표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특히 두레는 농경사회의 농민들이 노동을 상부상조하는 모임으로 그 형태와 기능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김필동, 1989; 김혜숙 등, 1997; 신용하, 1984, 1987; 최재석, 1975). 우리 나라의 두레와 다양한 형태의 계(契)는 우리 조상들이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 끼리 서로 돕고 살았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해 준다.

공동체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의 발달이 그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소수의 심리학자들이 지리적 공동체인 이웃, 동네, 도시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이러한 공간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해 오고 있다(Heller, 1989; McMillan & Chavis, 1986; Rappaport, 1981, 1987; Sarason, 1974; Wandersman, Jakubs, & Giamartino, 1981). 이들의 연구주제 중에는 공동체 및 공동체의식의 개발을 통하여 보나온 생활여건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도 있다. 즉, 과거 농경시대의 취락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고 돕던 마을의 공동체 기능을 의명성이 강한 도시라는 새롭고 복잡한 공간에서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알고 나아가서 서로 돕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핵심으로 부각된 개념이 바로 공동

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다.

공동체의 역사, 유형,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공동체의식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공동체의식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Glynn(1981, 1986)은 공동체의식의 이상적 특성과 현실적 특성에 대하여 120개의 문항을 작성하여 키부츠와 미국의 두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조사하였다. 현실적 공동체의식의 가장 좋은 예언변인은 ①그 공동체에 더 거주할 기간, ②그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③이름을 아는 이웃의 숫자 등이었다. Rigers와 Lavrakas(1981)는 이웃사람들과의 친숙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공동체의식을 연구한 바, 서로 관련된 두 개의 요인, 즉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요인과 행동적 정착(behavioral rootedness)요인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유대요인은 ①이웃사람들을 알아보는 능력, ②이웃의 일부라는 느낌, ③아는 이웃의 숫자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행동적 정착요인은 ①현재의 마을에 산 기간, ②주택의 소유 여부, ③현재의 거주지에서 더 살 기간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결합시켜서 주민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네가지 유형은 ①젊은 뜨내기(낮은 유대, 낮은 정착), ②젊은 참여자(높은 유대, 낮은 정착), ③고립된 사람(낮은 유대, 높은 정착), ④안정된 참여자(높은 유대, 높은 정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친숙한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연령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McMillan(1976) 그리고 McMillan과 Chavis(198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의 소속감,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하다는 느낌 또는 집

단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상호관여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라는 네 가지의 하위개념으로 분석하였다.

Chavis와 Wandersman(1990)은 공동체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이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요인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통제(control)와 권력부여(empowerment),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이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그림 1과 같이 경로분석 양식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동체 내의 실제적인 생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가까운 요인은 주민모임 또는 시민모임과 같은 자발적인 이웃의 모임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동의 수준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지각, 지각된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통제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 요인이 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앞의 요인들이 공동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Chavis와 Wandersman(1990)은 자신들이 개념화한 도식적 틀에 따라서 경험적 연구를 한 결과, 공동체의식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의 지표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산된 마음을 한 덩어리로 뭉쳐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avidson과 Cotter(1991)는 ‘시’를 단위로 한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안녕이 연관됨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15문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식척도를 만들었는데, 이 척도의 점수와 네 가지의 주관적 만족(즉, 전반적인 행복감, 타인과 비교한 삶에 대한 만족도, 여러 걱정의 빈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점수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중사회, 산업사회, 익명적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실 등으로 요약되는 현대사회에서 한 개의 모래알처럼 뿔뿔이 분산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알고, 서로 돕고, 필요한 것을 함께 채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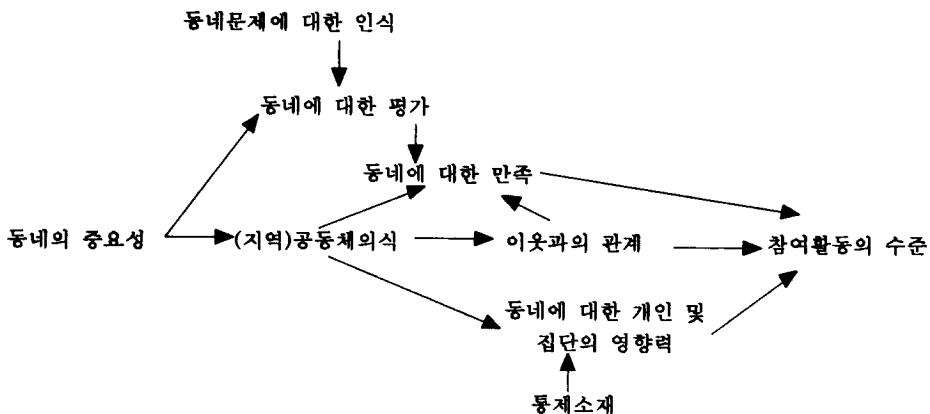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경로분석 모델

자료 출처: Chavis, D. M. & Wandersman, A.(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p.60.

안이 “공동체적 삶”이며, 이 공동체적 삶으로 이 끌어 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 공동체의 식이라고 생각된다.

지역공동생활과 혈연, 학연 및 지연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특정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 소속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정 지역에서의 생활이 지역공동체 생활이고, 이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에서는 이웃사람들과의 교류와 같은 지역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공동체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웃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외에도 가족 및 일가친척의 관계인 혈연, 각급 학교의 졸업생들 간의 관계인 학연, 출신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연, 그리고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을 가지고 있다. 김진균(1983)은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 그리고 직장동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직망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된 사회적 기제라고 분석하였다. 이종한(1994)은 이러한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종한(1992)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사회에 비하여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 등을 기초로 하는 비자발적 집단에 더 많이 가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발적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발적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지만 그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혈연관계, 학연관계 그리고 지연관계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 중에서 혈연집단, 학연집단 그리고 지연집단과 같은 지역공동체 밖의 조직망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이 집단들에게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해 지게 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체의식도 약해 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생활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각자가 소속된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활동, 즉,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구성원과 그들이 소속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혈연공동체 집단에서 시작되어 이웃, 동네, 동(洞) 또는 면(面)이나 읍(邑)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넓어지고 나아가서 시(市)와 도(道)까지 확장된다.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일정한 틀을 갖춘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생활의 공간적·지리적 근거지인 지역공동체가 행정적 단위에 따라서 정의된다. 우리의 지역공동체는 국가에서 정한 정치제도 또는 행정조직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각각 개인이 적게 가지게 되는 반면, 중앙의 정치적 권력과 통제력이 줄어들고 그 권한이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하위 수준의 지방으로 이관·분산되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생활에 대한 조절의 재량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구청장, 시장, 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보다 많은 사안

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을 직접 선출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필요한 사안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구주제 중에는 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공동체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Glynn, 1986; Heller, 1989; Rappaport, 1981, 1987; Sarason, 1978). 공동체의식이 낮아진 원인으로 첫째로 산업화, 두 번째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정부구조의 비대,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조직과 중앙조직의 불균형을 들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세기 동안 진행된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Glynn, 1986).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대중사회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조직이 비대하여져서 중앙 또는 구조적으로 상위조직에 권력이 편중되어 개인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축소되게 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공동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정치와 행정조직에 의해서 빼앗긴 개인의 권리를 되찾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Rappaport(1981, 1987)는 공동체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decentralization)시키고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수준의 지방조직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각자에게 권력이 부여되어야(empower)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eller(1989)는 공동체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공간을 매개로 하는 지역공동체, 공통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관계공동체에 추가하여 집단정치적 권력으로서의 공동체(community as collective political power)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어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과 기초단체장(구청장, 시

장, 군수) 그리고 각 수준의 의회의원의 선출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시행되어 온지 오래된 서구의 지방자치제와 이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하기 힘들지만, 시민의 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구역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구를 설치한 것은 과거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역공동체 생활의 변화에 의미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다양한 공동생활을 통하여 구명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개년 계획 중에서 첫째에 이루어진 부분이다. 첫째의 연구 영역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생활, 지역공동생활, 그리고 그 외의 모임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첫째 해의 연구의 위 네개 영역 중에서 지역공동생활에 관한 것이다. 지역공동생활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자료, 그리고 전체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인들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지역공동생활과 관련되는 변인은 우선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터인 주택의 소유 여부와 단독주택,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등 주택의 형태를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현재의 거주지에 산 기간과 앞으로 더 살 기간, 이사할 계획의 유무와 계속해서 살거나 이사할 하고자 하는 이유를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이웃과의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웃모임 참여도와 이러한 이웃모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인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연고 여부, 동네와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한 지각, 그리고 지역공동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이에 대한 기대를 알아 보았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이 조사는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남자 506명, 여자 494명)에 대한 전국조사로 표본추출 방법은 다단계 층화 군집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은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 성인 남녀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 지역별로 표본수를 결정하고, (2) 광역시는 구별로, 도지역은 시·군별로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3) 광역시는 구에서 통/반을 무선표집하고, 시·군의 경우는 통/반 또는 리/마을을 무선표집하여 총 100개의 표집지점(sampling spot)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 각 표집지점(표집된 통/반 또는 리/마을)에서 10개 가구를 선정하고 각 가구 내에서 1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

준별 및 수입별 특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 문항 및 지역공동체의식 척도: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 질문지 중에서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소유 여부와 주택의 형태
2. 현재의 거주지에 산 기간과 앞으로 더 살고 싶은 기간
3.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주 여부와 계속 거주와 이주의 이유
4.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에의 참여도
5. 지역공동체의식
6. 현재의 거주지에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 유무
7. 동네 또는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지역별 분포			성별 분포		
서울	258	25.8	남자	506	50.6
부산	89	8.9	여자	494	49.4
대구	54	5.4	계	1,000	100.0
광주	25	2.5	연령별 분포		
인천	43	4.3	20대	336	33.6
대전	25	2.5	30대	295	29.5
경기	147	14.7	40대	187	18.7
강원	35	3.5	50-60대	182	18.2
충북	32	3.2	계	1,000	100.0
충남	43	4.3	개인소득수준별 분포		
경북	64	6.4	없음	308	30.8
경남	84	8.4	50만원 미만	53	5.3
전북	45	4.5	50-150만원	401	40.1
전남	56	5.6	150-250만원	167	16.7
계	1,000	100.0	250만원 이상	54	5.4
학력별 분포			모름, 무응답	17	1.7
무학, 국 중퇴	25	2.5	계	1,000	100.0
국졸, 중 중퇴	70	7.0	성별·직업별 분포		
중졸, 고 중퇴	106	10.6	남성 유직	480	48.0
고졸, 대 중퇴	505	50.5	무직	26	2.6
전문대졸 이상	254	25.4	여성 유직	234	23.4
모름, 무응답	40	4.0	무직	7	0.7
계	1,000	100.0	주부	253	25.3
			계	1,000	100.0

8.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공동체에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영향

현재 사는 동네, 즉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Perkins 등(1990)이 개발한 공동체의식 척도(Sense of Community Index)를 이용하여 19개 문항의 동네에 대한 공동체의식 척도를 만들었다. 이 문항들은 McMillan(1976)과 McMillan과 Chavis(1986)의 연구에서 밝혀진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위개념인 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에 관하여 작성되었다. 이 공동체의식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과 전체 척도점수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바, 다른 18개의 문항 보다 그 상관이 현저하게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개의 문항으로 지역공동체의식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만점은 18점이다.

이러한 문항 이외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 결혼상태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조사방법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각 면접인이 선정된 조사대상

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각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주택의 소유 여부와 주택형태

주택의 소유 여부와 주택의 형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9.4%가 자신의 집을 가진 반면에 40.6%는 아직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남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64.5%이고 아파트가 24.3%, 연립주택, 빌라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11.2%이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거주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주택소유율이 높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기주택의 소유 비율은 읍/면지역의 응답자들이 77.6%이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53% 수준이어서 대조적이었다. 읍/면지역의 응답자의 85.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면에 대도시의 59.8%, 중소도시의 53.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중소도시의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36.4%이었고, 대도시가 25.7% 그리고 읍/면지역이 8.8%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응답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의 형태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표 2. 전체, 거주지역별, 고향 여부별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형태의 백분율(사례수)

		주택 소유 여부			주택 형태			
		자가 소유	임 대	전 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 체
전	체	59.4(591)	40.6(404)	100.0(995)	64.5(631)	24.3(238)	11.2(110)	100.0(979)
거주 지역	대도시	53.5(262)	46.5(228)	100.0(490)	59.8(291)	25.7(125)	14.6(71)	100.0(487)
	중소도시	53.6(140)	46.4(121)	100.0(261)	53.8(136)	36.4(92)	9.9(25)	100.0(253)
	읍/면	77.5(189)	22.5(55)	100.0(244)	85.4(204)	8.8(21)	5.9(14)	100.0(239)
		$\chi^2(2) = 43.73^*$			$\chi^2(4) = 72.95^*$			
고향 여부	고향	68.3(326)	31.7(151)	100.0(477)	72.0(337)	20.7(97)	7.3(34)	100.0(468)
	타향	51.2(265)	48.8(253)	100.0(518)	57.5(294)	27.6(141)	14.9(76)	100.0(511)
		$\chi^2(1) = 30.41^*$			$\chi^2(2) = 25.26^*$			

* $p < .001$

보였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의 68.3%가 자기집을 소유한 반면에 타향인 사람들은 겨우 과반수인 51.2% 이어서 대조적이었다. 현재의 거주지가 고향인 사람들은 72%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비하여 타향인 사람들은 57.5%이었고, 연립주택의 경우는 타향인 응답자가 고향인 응답자의 두배인 14.8% 이었다. 주택사정과 관련하여 볼 때 고향에 사는 사람들의 여건이 타향에 사는 사람들 보다 상당히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의 거주기간 및 계속 살 기간

현재의 거주지에 산 기간은 평균 9.6년($SD = 11.24$) 이었고, 이 기간은 주거지역,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하였다(표 3 참조). 거주하는 도시의 크기에 따라 거주기간의

표 3. 전체, 주거지역,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형태별 현재의 거주지에 거주한 햇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
전	체	9.6(11.24)	
주거 지역	대도시	7.0(7.60)	95.58*
	중소도시	7.2(8.50)	
	읍/면	17.5(15.50)	
주택 소유 여부	자가	13.2(12.78)	164.74*
	임대	4.5(5.43)	
주택 형태	단독주택	11.9(12.47)	38.38*
	아파트	5.7(7.13)	
	연립/다세대	5.3(6.98)	

* $p < .001$

표 4. 계속 거주하는 이유¹와 이주하고 싶은 이유¹의 백분율(사례수)

계속 거주하는 이유		이주하고 싶은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편해서	22.2(171)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해서	28.7(124)
직장 때문에	19.7(152)	직장 때문에	22.2(96)
동네의 물, 공기등 환경이 좋아서	14.2(109)	경제적 사정	14.1(61)
교통이 편리해서	13.0(100)	동네의 물, 공기등 환경이 나빠서	12.3(53)
경제적 사정	10.8(83)	자녀교육	7.6(33)
동네의 이웃사람이 좋아서	10.6(82)	교통이 불편해서	7.2(31)
자녀교육	6.8(52)	동네의 이웃사람이 싫어서	2.1(9)
기타	0.3(21)	기타	5.8(25)
전체	100.0(770)	전체	100.0(432)

¹ 중복응답이 가능함

차이가 많았다. 읍과 면지역의 평균 거주기간이 17.5년인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7.2년, 그리고 대도시는 7.0년 이어서 읍/면지역의 거주기간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 998) = 95.58, p < .001$).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거주지에 평균 13.2년을 산 반면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1/3 정도인 평균 4.5년이었다($F(2, 993) = 164.74, p < .001$). 주택의 형태별로도 현 거주지에 산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975) = 38.38, p < .001$).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11.9년이었고, 아파트는 5.7년, 연립주택은 5.3년이었다. 사후검사 결과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현거주지에 산 햇수가 나머지 두 집단의 햇수 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Scheffe test, $p < .05$).

현재의 거주지에 더 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예정한 사람들이 10.8%, 1년에서 3년 미만이 18.5%, 3년에서 9년 미만이 16.5%, 그리고 9년 이상으로 오래 살 것으로 예정하는 사람들이 21.4%이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24.8% 있었다.

계속 거주하는 이유와 이주하고 싶은 이유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하여 살고 싶은 사람들이 과반수인 62.1%이었고, 현거주지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37.9%이었다. 이주 희망 여부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인 응답자와 타향인 응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chi^2(1) = 2.78, p < .10$), 유의미한 수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주 희망 여부는 현재거주가 고향이거나 타향이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다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①현재 살고 있는 집이 편해서(22.2%), ②직장 때문에(19.7%), ③동네의 물, 공기 등 환경이 좋아서(14.2%), ④교통이 편리해서(13.0%), ⑤경제적 사정(10.8%), ⑥동네의 이웃사람이 좋아서(10.6%), ⑦자녀교육(6.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거주지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떠나고 싶

은 이유도 위의 계속해서 살고 싶은 이유와 유사하였으며, 그 순서는 ①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해서(28.7%), ②직장 때문에(22.2%), ③경제적 사정(14.1%), ④동네의 물, 공기 등 환경이 나빠서(12.3%), ⑤자녀교육(7.6%), ⑥교통이 불편해서(7.2%), ⑦동네의 이웃사람이 싫어서(2.1%) 등이다.

이웃모임 참여도

반상회 또는 이와 비슷한 이웃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의 이웃모임 참여율을 보면, 이웃모임에 ‘항상 또는 자주 참가하는’ 비율이 13.9%, ‘반정도 또는 가끔 참가하는’ 응답자가 24.4%에 비하여 ‘전혀 참가하지 않는’

표 5. 전체,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주택형태, 이사 희망 여부, 원하는 거주 기간에 따른 이웃모임 참여도의 백분율(사례수)

참가 정도		항상 참가	자주 참가	반정도참가	가끔 참가	완전 불참	전 체	χ^2
전체		3.4(33)	10.5(102)	2.5(24)	21.9(213)	61.8(602)	100.0(974)	
성별	남자	3.5(17)	10.2(50)	2.1(10)	19.3(94)	64.9(316)	100.0(487)	5.17
	여자	3.3(16)	10.7(52)	2.9(14)	24.4(119)	58.7(286)	100.0(487)	
교육 수준	무학	8.3(2)	29.2(7)	4.2(1)	33.3(8)	25.0(6)	100.0(24)	50.34*
	초등졸	4.3(3)	18.6(13)	2.9(2)	25.7(18)	48.6(34)	100.0(70)	
	중등졸	5.8(6)	15.4(16)	5.8(6)	29.8(31)	43.3(45)	100.0(104)	
	고등졸	3.6(18)	9.5(47)	2.2(11)	21.7(107)	63.0(311)	100.0(494)	
	전문대졸 이상	1.6(4)	6.9(17)	1.6(4)	19.5(48)	70.3(173)	100.0(246)	
거주 지역	대도시	2.3(11)	7.6(36)	2.3(11)	21.7(103)	66.0(313)	100.0(474)	41.65*
	중소도시	2.3(6)	8.9(23)	1.5(4)	19.7(51)	67.6(175)	100.0(259)	
	읍/면	6.6(16)	17.8(43)	3.7((9)	24.5(59)	47.3(114)	100.0(241)	
주택 소유 여부	자가	4.8(28)	13.0(75)	3.3(19)	24.6(142)	54.3(314)	100.0(578)	40.56*
	임대	1.3(5)	6.9(27)	1.3(5)	18.2(71)	72.4(283)	100.0(391)	
주택 형태	단독 주택	3.9(24)	10.1(62)	2.3(14)	19.6(120)	64.1(392)	100.0(612)	6.83
	아파트	2.5(6)	10.6(25)	2.8(3)	26.7(25)	57.2(135)	100.0(236)	
	연립/다세대	2.8(3)	10.2(11)	2.8(3)	23.1(25)	61.1(66)	100.0(108)	
이사 희망 여부	계속 살기	4.5(27)	13.1(79)	3.3(20)	24.4(147)	54.7(329)	100.0(602)	38.63*
	이사 가기	1.6(6)	6.2(23)	1.1(4)	17.7(66)	73.4(273)	100.0(372)	
원하는 거주 기간	9년 이상	6.6(14)	16.9(36)	5.6(12)	26.3(36)	44.6(95)	100.0(213)	70.92*
	3~9년 미만	3.7(6)	7.4(12)	1.9(3)	22.2(36)	64.8(105)	100.0(162)	
	1~3년 미만	1.7(3)	3.9(7)	0.0(0)	22.5(40)	71.9(128)	100.0(178)	
	1년 미만	0.0(0)	3.7(4)	0.9(1)	16.8(18)	78.5(84)	100.0(107)	
	생각한 없음	3.3(8)	12.6(30)	2.5(6)	21.4(51)	60.1(143)	100.0(238)	

* $p < .001$

사람들이 61.8%이어서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의 호응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참여율을 비교하였을 때, 학력이 낮을수록 이웃모임에 참여하는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6) = 50.34, p < .001$). 특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들의 70%이상이 이웃모임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반면에 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자들은 그 숫자가 25%이어서 대조적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는데($\chi^2(8) = 41.65, p < .001$), 읍면지역 사람들이 이웃모임에 '항상 또는 자주 참가하는' 비율이 24.4%인데 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9.9%와 11.2%이었으며,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이 각각 66.0%, 67.6%, 그리고 47.3%이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참율이 읍/면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이웃모임에의 참여도가 달랐다.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사는 사람이 남의 집을 임대하여 사는 사람들보다 참여도가 훨씬 높았다($\chi^2(4) = 40.56, p < .001$). 자기 집에 사는 응답자는 이웃모임에 '항상 또는 자주 참가하는' 비율이 17.8%인데 비하여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8.2%이었으며, '반정도 또는 가끔 참가하는' 비율이 각각 27.9%와 19.5% 이었다. 그리고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은 임대주택 거주자가 72.4%로 자기 집의 사람들의 54.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들과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에 이웃모임에의 참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의 거주지에서 계속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는 자주 참가', '반정도 또는 가끔 참가', 그리고 '불참'의 비율이 각각 17.6%, 27.7%, 그리고 54.7%인 반면에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각각 7.8%, 18.8%, 그리고 73.4%로 나타나서 계속하여 살 사

표 6. 전체,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주택 형태, 이사 희망 여부, 원하는 거주 연한 및 고향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점수¹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
전 체		10.2(4.30)	
성 별	남자	10.1(4.39)	0.94
	여자	10.3(4.19)	
교육 수준	무학	13.6(3.84)	18.84**
	초등졸	12.3(4.41)	
	중등졸	11.9(3.94)	
	고등졸	10.1(4.15)	
	전문대졸 이상	8.9(4.18)	
주거 지역	대도시	9.7(3.99)	28.18**
	중소도시	9.4(4.36)	
	읍·면 지역	11.9(4.37)	
주택 소유 여부	자가	10.9(4.23)	38.40**
	임대	9.2(4.16)	
주택 형태	단독주택	10.7(4.22)	16.77**
	아파트	8.9(4.20)	
	연립/다세대	9.5(4.35)	
이사 희망 여부	계속 살기 원함	11.5(3.94)	168.04**
	이사가기 원함	8.1(4.03)	
원하는 거주 연한	9년 이상	12.5(3.90)	27.90*
	3년~9년 미만	9.8(3.63)	
	1년~3년 미만	8.8(4.18)	
	1년 미만	8.4(4.44)	
	생각한 적 없음	10.6(4.21)	
고향 여부	고향	10.6(4.42)	8.56*
	타향	9.8(4.15)	

¹ 공동체의식 점수는 0점에서 18점까지 가능함

* $p < .01$, ** $p < .001$

람들의 이웃모임 참여도가 훨씬 높았다($\chi^2(4) = 38.63, p < .001$).

현재의 거주지에 얼마나 더 살 것인가 하는 변수 역시 이웃모임에의 참여도를 설명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현 거주지에서 9년 이상 더 살 사람, 3년~9년 미만, 1년~3년 미만, 1년 미만 더 살 사람들의 참여도를 비교하면 '항상 또는 자주 참여'가 각각 23.5%, 11.1%, 5.6%, 그리고 3.7%이고, '반정도 또는 가끔 참여'가 각각 31.9%, 24.1%, 22.5%, 그리고 17.7% 이어서 참여율이 현재의 거

주지에 더 살고 싶은 점수가 적어짐에 따라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참율은 각각 44.6%, 64.8%, 71.9% 그리고 78.5%가 되어서 이주할 계획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알 수 있다($\chi^2(16) = 70.92$, $p < .001$). 이주에 대하여 아직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율이 높은 편이어서 ‘3년~9년 미만’ 현재의 거주지에서 더 살 사람들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9년 이상 계속하여 현거주지에 더 살 사람들보다는 낮았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택형태별 참여도의 비교에서는 참여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웃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읍/면지역에서 자기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동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웃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고, 대도시에서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살면서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웃모임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지역공동체의식

현재 사는 동네, 즉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공동체의식 척도의 19개의 각 문항과 전체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18개 문항은 $r = .31$ 에서 $r = .64$ 인데 비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항만 $r = .18$ 이어서 이 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으로 공동체의식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척도에서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18점이며, 척도의 신뢰도계수(알파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은 10.2($SD = 4.30$)이었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배경에 따라서 공동체의식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각 인구통계적 구분에 따른 공동체의식 점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남자들의 공동체의식점수는 10.1이고 여자들의

점수는 10.3이었는데 이 점수들 간에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공동체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 945) = 18.84$, $p < .001$). 교육수준별 점수를 나열하면, 무학이 13.6, 초등학교 졸업이 12.3, 중등학교 졸업이 11.9, 고등학교 졸업이 10.1,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8.9이다. 이 점수들 간의 차이를 사후검사(Scheffe test: 각각 $p < .05$)한 결과,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다른 모든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무학 및 초·중등학교 졸업자들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그 외의 쌍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984) = 28.18$, $p < .001$). 평균치들 간의 차이를 보면 읍/면지역(11.9)이 대도시(9.7)와 중소도시(9.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Scheffe test: 각각 $p < .05$),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에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 985) = 38.40$, $p < .001$), 즉 자가에 사는 사람들(10.9)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9.2)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현재의 거주지에 더 살고 싶은 사람들(11.5)과 떠나고 싶은 사람들(8.1)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 985) = 168.04$, $p < .001$). 현재의 거주지에 산 기간과 공동체의식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 = .35$, $p < .001$).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도 공동체의식점수에 차이를 보였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점수가 1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 거주자(9.5)이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아서 8.9로 나타났다($F(1, 963) = 16.77$, $p < .001$). 단독주택 거주자의 점수만이 연립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Scheffe test: 각각 $p < .05$).

현재의 거주지에 더 살고 싶은 기간을 네개로 범

표 7. 거주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른 공동체의식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주거 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계
거주 지역	대도시	10.1(3.90)	9.3(3.94)	9.2(4.39)	9.7(3.99)
	중소도시	9.8(4.28)	8.6(4.52)	9.4(4.04)	9.4(4.36)
	읍·면 지역	12.4(4.21)	8.0(4.21)	11.6(4.36)	11.9(4.37)
	계	10.7(4.22)	8.9(4.20)	9.5(4.35)	10.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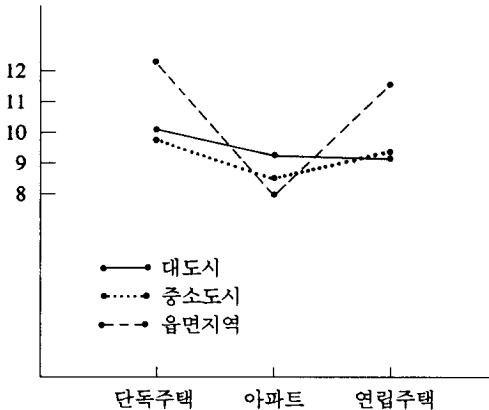


그림 2. 거주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른 공동체의식 점수

주화하였을 때 기간이 길수록 공동체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 907) = 27.90, p < .001$). 즉, 9년 이상 더 살 예정인 사람들은 12.5, 3년에서 9년 미만은 9.8, 1년에서 3년 미만은 8.8, 그리고 1년 미만은 8.4이었으며, 그러나 얼마나 더 살지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10.6으로 높은 공동체의식 점수가 나왔다. 사후검사(Scheffe test, 각각 $p < .05$) 결과 9년 이상 집단은 나머지 모든 집단에 비하여 높았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도 3년 미만의 두 집단 보다 높았으며, 그 외의 쌍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점수가 10.6으로 타향에 사는 사람들의 9.8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F(1, 985) = 8.56, p < .05$).

공동체의식점수에 있어서 표 6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조합하여 분석한 바, 거주지역과 주거형태를 교차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4, 957) = 3.09, p$

$< .01$), 표 7과 그림 2 참조). 이 분석에서 주택형태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였고($F(2, 957) = 31.94, p < .001$), 거주지역에 대한 주효과($F(2, 957) = 2.83, p < .06$)는 거의 유의한 수준이었다. 읍면지역의 단독주택(12.4)과 연립주택(11.6)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대도시의 응답자(단독주택: 10.1; 연립주택: 9.2)와 중소도시의 응답자(단독주택: 9.8; 연립주택: 9.4)에 비하여 공동체의식점수가 높아서 거주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응답자들의 공동체의식 점수는 8.0으로 읍면지역의 전반적 경향(11.9)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양상을 보였을뿐 아니라 어느 집단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이 관심을 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읍면지역의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읍면지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상당히 다르거나 외지인들의 유입 등에 의해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공동체의식이 아주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의식의 수준을 종합하여 보면, 읍면지역에서 자기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동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대도시에서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살면서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공동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공동체의식·지역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표 8에 지역공동체의식 점수와 주관적 안녕감(즉,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 그리고 지역만족도와

표 8. 지역공동체의식·지역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간의 상관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 삶에 대한 기대
지역공동체의식	.17(1000)* ¹	.00(1000)
지역 만족도 ²	.22(1000)*	-.00(1000)

¹ * $p < .01$

² 지역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공동체의식 척도중에서 '우리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에 살면서 편안하게 느낀다',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 예정이다'의 평균 점수임.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지역만족도는 지역공동체의식 척도 문항중 만족도와 관련된 세 문항을 골라 그 평균으로 삼았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는 0.17로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지역만족도 점수도 주관적 안녕감과 약간 더 높은 상관($r = .22$)을 보였다.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지역공동체의식, 그리고 지역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공동체의식이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관관계수보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고 하지만 상관관계수의 절대치가 너무 적어서 변인들 간에 실제적인 관련성을 해석함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 거주지와 연고조직망(혈연, 학연, 지연)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친척, 동창, 고향친구 등 연고가 있는지에 대하여 38.4%의 응답자는 연고가 없다고 한 반면에, 61.6%는 앞의 세 가지 연고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연고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혈연이 가장 보편적이었고(92.2%), 지연(80.8%)과 학연(79.5%)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의 반수인 47.7%는 현재 사는 곳이 고향이었고 나머지 52.3%가 타향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향에 사는 이들의 1/4은 일년에 5회 이상 고향을 방문하고 있으며 약 80%는 일년에 최소한 1회 이상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1.4%는 거의 고향을 찾지 않았다. 이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로는 부모와 형제가 고향에 살기 때문이며(69.8%), 다음의 이유가 성묘와 제사 및 문중일(23.6%)이어서 고향을 방문하는 이유는 거의 혈연적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타향에서의 모임인 향우회의 결성 여부와 이에 대한 참여도는 고향에 대한 정서적 애착의 정도의 지표가 될 것이다. 객지에 사는 응답자의 51.2%가 현재 사는 곳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고 하였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25.0%이고 37.3%는 가끔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객지에 사는 응답자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31.9%는 향우회 등에 참가하여 고향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이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네와 지역사회의 범위

동네 또는 마을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의 범위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동네의 범위를 행정구역상의 동(洞)이나 읍(邑), 면(面) 단위까지를 설정하였고, 통(統)이나 반사회 범위와 같이 보다 더 좁은 범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 질문에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를 구분하여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의 범위를 '행정구역의 동이나 읍, 면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6.0%), 다음으로 '행정구역의 통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32.3%), 그리고 '가까이 사는 몇몇 사람들(반사회)'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응답자도 27.6%이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을 행정구역의 구(區), 시(市), 군(郡)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였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사는 사람들'(32.8%), '행정구역의 동이나 읍, 면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28.7%), '같은 동(棟, 건물)에 사는 사람들'(24.1%), 그리고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9.5%)의 순서로 정의하였으며, 행정구역의 구, 시, 군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하였다.

요즈음 흔히 사용되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질문한 결과, '행정구역의 구, 시, 군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지각하는 응답자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점차 지역의 범위를 좁혀 가는 순서로 나타났다. 즉, '행정구역의 동이나 읍, 면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8.8%, '같은 동(棟) 또는 가까운 마을 단위'가 14.8%,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또는 리(里) 단위 지역'이 10.5%이었으며, '행정구역의 광역시 또는 도(道) 단위 지역'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11.5%이었다. 거주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도시의 사람들 중에서 '같은 동(棟) 또는 건물' 단위를 지역사회 또

는 지역공동체라고 응답한 사람의 1/4에 가까운 22.1%를 차지하여 아주 좁은 지역을 상징하는 특성을 나타낸 반면에, 중소도시와 읍/면의 사람들은 대도시의 사람들에 비하여 행정구역으로 구, 시, 군 또는 동, 읍, 면을 더 많이 선택하여 이들이 보다 넓은 지역을 자신의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chi^2(8) = 45.78, p < .001$, 표 9 참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기대

1995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8개월 정도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유보적인 반면, 앞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까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반응(69.3%)을 주로 하였으며 '좋은 영향'이라고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이 16.3%이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에 거

표 9. 거주지역별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한 백분율(사례수)

지역사회/지역공동체의 범위	대 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전 체
같은 건물 또는 가까운 마을 단위 지역	22.1(106)	8.0(21)	7.4(17)	14.8(144)
공동주택 단지 또는 리 단위 지역	9.8(47)	11.8(31)	10.4(24)	10.5(102)
행정구역의 동, 읍, 면 단위 지역	25.3(121)	28.6(75)	36.5(84)	28.8(280)
행정구역의 구, 시, 군 단위 지역	30.9(148)	39.3(103)	35.7(82)	34.3(333)
행정구역의 광역시 또는 도 단위 지역	11.9(57)	12.2(32)	10.0(23)	11.5(112)
	100.0(479)	100.0(262)	100.0(230)	100.0(971)

$\chi^2(8) = 45.78, p < .001$

표 10. 지방자치제도의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남녀간의 비교(%)

	아주 나쁜 영향	나쁜 영향	그저 그렇다	좋은 영향	아주 좋은 영향	무름/ 무응답	χ^2
지금까지의 영향							
남자	0.8	6.9	65.8	20.6	0.8	5.1	18.69*
여자	0.4	5.7	72.9	11.9	0.6	8.5	
전체	0.6						
앞으로의 영향							
남자	0.8	4.3	32.4	52.6	4.2	5.7	19.96*
여자	0.6	2.8	41.1	44.5	1.6	9.3	
전체	0.7	3.6	36.7	48.6	2.9	7.5	

* $p < .01$

는 기대는 '좋은 영향' 또는 '아주 좋은 영향'이 과반수인 51.5%이었고,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4.3%에 불과하여 이 제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기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있어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여자들은 보다 중립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chi^2(5) = 18.69, p < .01$).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chi^2(5) = 19.96, p < .01$).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크기, 주택의 소유여부, 현 거주지에 산 기간, 이주여부 등의 하위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이웃모임에 대한 참여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수준을 종합하여 보면, 읍/면지역에서 자기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동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웃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가장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대도시에서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살면서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웃모임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공동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30대와 40대 기혼 남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한(1992)의 연구, 미국 등 서구문화에서의 연구결과인 Chavis 등(1986), Glynn(1981), 그리고 Riger와 Lavrakas(198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읍면지역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의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의 거주지에서 더 살려는 사람들이나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의 편리성, 교통 등 지역의 편의성 그리고 환경 공해 등이었다. 이 결과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대전시 시정연구단(1992)에서 대전의 99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①의료시설, 학교, 공원 등 도시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35.8%, ②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 25.8%, ③교통이 편리한 곳 14.5%, ④주위 사람의 인심이 좋은 곳 9.2% ⑤토지 또는 건물가격(전세비)이 비싼 곳 5.1%, ⑥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곳 3.1% ⑦학군이 좋은 곳 2%의 순서로 나열되었다.

본 연구와 다른 현장연구들에서 밝혀진 바가 시사하는 것은 높은 주택보급율,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반상회와 같은 지역모임 참여율, 공동체의식 그리고 현 거주지에서 이주하지 않고 더 오래 살려는 생각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보급율 향상,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 중에서 읍/면지역의 사람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주택보급율이 높고, 반상회와 같은 지역모임 참여율이 높고, 공동체의식 점수가 높으며 그리고 현 거주지에서 이주하지 않고 더 오래 살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서도 예상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안 모색에 있

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도시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도시에서 읍/면지역 즉, 농어촌과 비슷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고향이고, 나머지 반은 타향이었다. 열명 중에서 여섯 명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관련하여 혈연, 학연, 지연 등을 가지고 있었고, 열명 중에서 네명은 현 거주지에 연고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타향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과의 유대를 이어 가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밝혀진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연고주의의 조직망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은 복잡한 조직망의 맥락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만족도는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avidson과 Cotter(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비록 그리 높은 상관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유대감, 영향력 지각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 및 지역공동체 만족도간의 상관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 측정 방법이 단 하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로서 이 관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네’라는 말은 대체로 행정구역의 동, 읍, 면 또는 이보다 약간 좁은 공간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는 구, 시, 군을 그 범위로 생각하거나 이보다 약간 좁은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지방자치제도와 연계하여 고려할 때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보아진다.

시행된 지 일년이 아직 못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면서도 약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앞으로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아주 높게 나온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본 조사의 질문이 단순하기는 하였지만, 조사 결과는 최근에 지방자치제도 시행 일년을 기하여 여러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230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아주 만족) 만점에 전체의 평균이 3.22로 나타나서 보통(3점)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1996. 6. 16). 이 만족도를 지역단위의 규모별로 비교하였을 때 읍면지역 3.39, 중소도시 3.12, 그리고 대도시 3.08로 나타나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1996. 7. 2)의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70.2%,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함심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51.9%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원에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와 환경·교통문제 등의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아직 그 결과에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매일 살아가는 지역생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도가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의 범위를 동, 읍, 면 이하의 행정단위로 설정하였고,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는 구, 시, 군 이하의 행정단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갖는 행정관청에 대한 관심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하위의 행정단위(동, 읍, 면)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더 하위단위의 행정부서에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Rappaport(1981, 1987)가 주장하는 비대해진 중앙정부에 빼앗긴 개인의 권리를 되찾게 되어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하여 보다 더 긍정적이었던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남자들이 가지는 관심사와 여자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다르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기대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구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국표본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 또는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도 통상의 구분을 따랐으나,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택의 소유여부, 주택형태, 현재의 거주지에 산 했수, 이웃모임 참여도, 지역공동체의식점수 등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전국표본을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관

행적으로 구분하던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을 근거로 한 공동생활, 공동체의식, 그리고 주관적인 안녕감 등에 대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는 어려웠지만, 지역사회에서 보다 좋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있는 결과가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서로가 알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동체적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높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결과는 자신의 주택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함을 보여 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같은 주거형태가 공간의 효율은 높이는 반면 공동체의식은 낮게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택개발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편리한 주택을 근거지로 하여 이웃과 교분을 나누면서 한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고, 인간적인 우애를 느낄 수 있는 지역공동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 김필동(1989). 조선시대 계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대전시 시정조사연구단(1992). 대전시민 기초수요조사연구.
- 신용하(1984).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

- 사회사연구 2, 한길사.
- 신용하(1987).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사상사.
- 이종한(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조선일보(1996). "단체長 잘한다" 절반. 1996. 6. 16.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종한, 조성을 · 최진호(1997).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1995년도 교육부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과제연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재석(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서울: 일지사.
- 한겨레신문(1996). 지자체1년 만족도 '52'점. 1996. 7. 2.
- 한상복(1980). 韓國人의 共同體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3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숙기(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남자와 여자의 생활환경과 행복. 서울: 나남출판사.
- Chavis, D. M., Hogge, J. H., McMillan, D. W., & Wandersman, A.(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24-40.
- Chavis, D. M. & Wandersman, A.(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 Davidson, W. B., & Cotter, P. R.(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246-253.
- Glynn, T. J.(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0-818.
- Glynn, T. J.(1986). Neighborhood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341-352.
- Gusfield, L. W.(1975).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Heller, K.(1989). The return to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1-15.
- Kitto, H. D. F.(1951). *The Greeks*. New York: Penguin.
- McMillan, D. W.(1976). *Sense of community: An attempt at defi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Nashville, TN.
-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6.
- Rappaport, J.(1981). In prase of paradox: A social policy of empowerment over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1-26.
- Rappaport, J.(1987). Terms of empowerment/ exemplars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55-66.
- Riger, S., & Lavrakas, P. J.(1981). Community ties: Patterns of attach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55-66.

Sarason, S. B.(1974). *The Psychobiological sense of community: Perspectives for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Sarason, S. B.(1978). The nature of problem solving in social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33, 370-380.

Tönnis, F.(1887/1989).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In R. L. Warren, & L. Lyon(Eds.).

New perspectives on Aamerican community (5th ed.). Chicago, IL: Dorsey Press.(Reprinting from *Community and society*, 1957, Mich Stat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87).

Wandersman, A., Jakubs, J. F., & Giamartino, G. A.(1981). Participation in block organizations. *Journal of Community Action*, 1, 40-48.

Korean Community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Jonghan Yi and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mmunity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respondents were 1,000 males and females of age of over 20, sampled from the whole population in Korea. The people who live in their own house and in the rural area('yup' and 'myun'), and have longer expected length of community residency like to attend the community meeting frequently as well as have higher sense of community. The major factors of deciding community residency were the convenience of their houses and the transportation of their community, and the degre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and the sense of community were co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with life. The boundary of neighbor was considered smaller than that of 'dong', 'yup', and 'myun'. The half of respondents lived in their own hometown, the rest half who live in the strange land also kept connection with their hometown in several ways.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effect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slightly positive and expected very positively the effect of this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